

양식장 전기요금 부담 ‘노심초사’

최근 3년 새 2배가량 올라... 올 하반기에도 인상될 듯 산소발생기·해수펌프 가동 등 특성상 24시간 전력 사용 양식업계 “고수온 피해에 전기요금 부담 커 경영 악화”

최근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도내 양식장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태흥리 양식업자 A씨는 “고수온으로도 힘든데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 경영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00평(6611㎡) 규모 양식장 기준으로 2022년도 월 전기요금은 15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월에는 3000만원 정도 청구돼 경영비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주시 하도리 양식업자 B씨도 “몇 년 사이 전기요금이 두 배는 오른 거 같다”며 “예전엔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 8월에는 800만~

8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했다.

24시간 해수펌프, 사료제조기, 산소발생기, 저온창고 등을 가동해야 하는 양식장은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농사용 전력량요금(고압)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68.6원으로 2021년 1월 kWh당 36.9원 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전력(을)은 2021년 1월 36.9원에서 2022년 4월 41.8원, 2022년 10월 49.2원, 2023년 1월 53원, 2023년 5월 55.7원, 2024년 1월 59.5원, 2024년 4월 62.2원 올해 4월 68.6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전망된다.

치솟는 전기요금에 지난해 정부

는 양식장 1곳 당 44만원의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수천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별 양식장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세 환급, 특례할인 등 제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인버터를 지원하고 배출수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소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현장 반응은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양식업자들은 “전기세 특례할인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양식장 에너지 효율화도 시설교체가 들어가는데 업계 전망이 어두운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설비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중소기업 장관과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1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다. 제주도 제공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어제 개막... 5일까지 3대 의제 논의 21개국 대표단·기업인 등 5000여명 제주행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중소기업 장관과 기업인들이 모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1일 막을 올렸다.

오는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회원국 대표단과 기업인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전략을 주제로 신기술 기반 혁신, 스마트 정책, 연결성 강화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개막 첫 순서로 열린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에서는 ‘중소기

업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기구와 회원국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회의 기간에는 혁신기업 23개사가 참가하는 ‘K-TECH 전시관’과 제주 5개 기업이 참여하는 ‘K-뷰티 전시관’이 운영되며, 전국 대표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와 연계해 제주 내 50개 중소·소상공인이 제품 홍보와 판매에 나섰다.

또한 지역 연계행사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여미지식물원에서 ‘202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가 개최돼 80여 개 식품기업이 전시·판매와 함께 구매

상담회를 진행하고 해외 판로 확대에도 도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회의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여정을 가속화하고, 제주가 아시아태평양 창업·혁신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82개 사업에 1110억원을 투자해 정책자금 확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개발(R&D) 지원, 디지털 기기 전환,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여름 끝!... 도내 해수욕장 폐장

올해 144만여명 이용해 전년보다 27% 늘어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31일 폐장한 가운데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은 무더위와 조기 개장의 효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144만 8500명으로, 2024년 113만 4065명 대비 31만명 늘었다. 이 중 제주시 관할 해수욕장은 124만 9855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함덕해수욕장은 70만 3064명(전년 대비 65% 상승), 이호태우해수욕장은 8만 7087명(전년 대비 23%), 광지해수욕장은 6만 6880명(전년 대비 116%)이 방문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 무더위와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관광 불친절, 바가지요금, 인명 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228명의 안전관리요원과 529명의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배치했다. 또한 편의용품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표시를 강화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였다.

제주도는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2주간 배치한다. 안전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입수 자체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해수욕장 조기 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가성비 높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3년간 폐석재 불법매립 업체대표 구속... 4면 / 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출발... 5면

제주매일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5 로컬푸드 상생마켓**
9월 18일(목) 하나로마트 노형점 주차장 동쪽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로컬푸드 상생마켓 운영을 통해 도민 홍보 및 판매 확대와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 부스 운영과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을 최소화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5
로컬푸드상생마켓

로컬푸드 활성화지원 **‘제주, 로컬푸드를 만나다’**

9월 18일(목) 11시~16시

하나로마트 노형점 주차장 동쪽
로컬푸드직매장

참가자 선착순 200명 기념품 증정 (11시부터 소진시까지)

주최 **제주매일**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농협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